

## 제호를 바꾸면서

오늘날 인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은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의 결합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과거와는 달리 복잡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영역 역시 보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과거 '신문연구소'라는 명칭에서 오는 오해와 제한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분야를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94년 3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The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가 지난 30년 동안 발간해온 『新聞研究所學報』도 『言論情報研究』라는 새로운 제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명칭은 바뀌었지만 본 연구소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호수는 통권 제 31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언론학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言論情報研究』라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1994년 12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장

박명진